



어촌관광 연구의 지형(2002~2025)과 시기별 토픽 비중 변화 분석:

토픽모델링과 내용분석 접근

Mapping the Research Landscape of Fishing Village Tourism
and Temporal Changes in Topic Proportions: A Topic
Modeling and Content Analysis Approach

이 유 안*

Lee, Yu-An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thematic structure of fishing village tourism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with the interpretation supported by high-probability documents based on gamma values. Drawing on 138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2 and 2025, three optimal topics were determined using coherence and perplexity measures: (i) resident perceptions of village project operation and tourism effects, (ii) tourist experiences, fishing village choice, and evaluation, and (iii) marine cultural resources, facilities, and industry development policy. Topic 1 focuses on residents' perceptions, village project operation, policy implementation, tourism demand, and perceived economic and social effects. Topic 2 centers on tourists' experiences, determinants of fishing village and fishing experience-leisure village choice, and post-experience evaluations, including imag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Topic 3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tourism content based on marine cultural resources, the use of spatial and facility infrastructure, and the integration of fisheries-related industries with tourism policy frameworks. Temporally, research shifts from a resource- and industry-dominated focus (early) to tourist experience-centered expansion (middle), and to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across topics (recent).

핵심어(Key words) : 어촌관광(Fishing Village Tourism),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연구동향(Research Trends), 어촌자원 (Fishing Village Resources), 어촌정책 (Fishing Village Policy)

* (주저자)신라대학교, e-mail : totitre@naver.com

I. 서론

어촌은 전통적으로 수산업 생산활동과 지역공동체의 생활이 결합된 공간이었으나, 최근 고령화와 청장년층 유출로 인해 인구와 지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21년 약 9만 명, 2024년 약 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통계청, 2022; 통계청, 2025), 2045년에는 어촌의 소멸위험지역 비율이 약 9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규 외, 2024). 이러한 변화는 어촌의 경제적 토대와 공동체 유지, 나아가 지역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촌관광은 생활·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어촌관광은 어촌자원을 활용해 소득 다각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획·운영 역량과 시설·서비스 여건의 한계로 확산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서 어촌관광사업 비중은 약 2.2%에 머물렀고, 식당경영 약 5%, 낚시안내업 약 3% 등 관광 관련 활동 비중도 낮게 나타나, 이는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와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통계청, 2025).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항·정주 환경과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경제·생활·안전 기능을 확충해 왔다. 아울러 관광·체험·여가 복합 공간 조성, 워케이션 환경 마련,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어촌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0; 2022). 또한 2024년 기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약 130개소 이상으로, 어촌관광의 거점도 확대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5).

한편, 어촌관광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실무적 요구에 대응하며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선행연구는 어촌체험마을과 관광객 특성(장양례, 2021, 2023), 어업유산의 관광자원화(조성대, 2022), 농어촌민박 정책 이슈(서은경·이호영, 2024), 축제(최용훈·김연수·송승규, 2023) 등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촌관광 논의의 확장과 실무적 적용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개별 주제 중심으로 축적되어 어촌관광 연구의 잠재적 주제 구조와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해양관광 연구에서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 선행되어 온 것과 대비된다. 해양관광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장신이·여영숙, 2021; 이재혁, 2020), 네트워크 분석(정승훈·남윤섭, 2015; 허균, 2020), 정책·학문 연계 고찰(진영재, 2020; 2025; 최창호·김재호, 2024), 빅데이터 기반 분석(하경희, 2021)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통합적 고찰이 수행되었다. 반면 어촌관광 담론 분석의 경우, 언론 담론 분석을 통해 정책 이슈를 확인한 연구는 있으나(고지영·이채완, 2024), 학술 담론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연구나 정책 이슈 중심의 접근을 넘어, 학술연구에 나타난 주제 구조와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의 어촌관광 학술연구를 대상으로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핵심 중심어와 잠재적 토픽 구조를 도출하고, 감마값이 높은 대표 문헌의 내용 검토를 통해 토픽을 해석하며, 시기별 토픽 비중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학술연구의 주요 흐름과 변화 특성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어촌관광 개념과 특성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대한민국, 2025). 해양관광은 해양, 연안, 도서, 해변, 어항 등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수욕,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크루즈, 도서관광, 해양치유, 해양문화 체험 등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어촌관광은 해양관광과 일정 부분 중첩되지만, 어촌마을, 어항, 어업활동, 어촌 생활문화, 수산물, 해양생태자원 등 어촌의 생활공간과 생산활동을 관광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김성귀·홍장원·박상우, 2001). 즉, 해양관광이 해양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 개념이라면, 어촌관광은 어촌공간, 주민 상호작용, 어업문화, 지역경제 연계가 강조되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으로 이해된다.

어촌관광의 활동은 해수욕, 경관·휴양, 낚시, 구매·시식, 스포츠, 생태·문화 체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어업·생태·마을·문화를 포함하는 체험형 관광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김성귀 외, 2001). 한편, 어촌관광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어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촌 재생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해양관광 연구의 거시적 검토와 토픽모델링 접근

어촌관광은 해양관광과 개념적 중첩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공유하므로, 해양관광 연구동향 검토는 어촌관광 연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기존 해양관광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장신이·여영숙, 2021; 이재혁, 2020), 네트워크 분석(정승훈·남운섭, 2015; 허균, 2020), 정책·학문 연계 고찰(진영재, 2020; 2025; 최창호·김재호, 2024), 빅데이터 분석(하경희, 2021) 등을 활용하여 연구 흐름을 검토해 왔다. 최근 해양관광 및 인접 분야에서는 토픽모델링도 활용되고 있으며, 마리나 이슈(김남규·장

승현·이근모, 2022), 해양 스포츠 산업(신승아, 2025), 크루즈 관광 연구동향(고민환, 2024), 섬 관광 주제 구조(이유안·윤대홍, 2025), 해양관광 활성화 영향요인(최정석·이창현, 2024), 해양치유정책 프레임 구조 분석(박경열·남아란, 2020) 등이 그 예이다.

어촌관광 분야에서도 모바일 통신, 카드매출, SNS, 리뷰 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의 이동·소비·방문 구조를 파악하거나(송소현·안병철, 2021), 코로나19 전후 어촌관광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최규철·이서구·강동선, 202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지의 관광객 행태나 변화 추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촌관광 학술연구 전반의 주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과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어촌관광 학술연구의 잠재적 주제 구조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토픽모델링은 대규모 텍스트 자료에서 단어의 출현 패턴과 문서 내 단어 분포를 바탕으로 잠재적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기법인 LDA는 문서가 여러 토픽의 확률적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Blei, Ng, & Jordan, 2003).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어촌관광 학술연구 흐름 분석을 위해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자료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촌관광”을 검색어로 수집한 국내 학술지 논문 초록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연구 중 2026년 1월 10일 이전 자료로 하였으며,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제외한 총 138편이다.

분석 기간은 2000·2010·2020년대의 시기적 특성과 코로나19 전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토픽 도출 이후, 시기 간 비교의 균형을 위해 구간을 9년, 9년, 6년으로 구성하고자 시작 시점을 200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기간을 초기(2002-2010년), 중기(2011-2019년), 후기(2020-2025년)로 구분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집된 논문은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검토를 거쳐 최종 분석 대상의 초록을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 형태소 분석을 통해 불용어를 제거하고 명사 중심의 단어를 추출하여 분석용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Scikit-learn을 활용한 TF-IDF 분석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 주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Gensim 기반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잠재적 주제 구조를 도출하였다. 토픽 수는 Coherence 점수(c_v), Perplexity, 토픽 간 구분 가능성 및 해석 용이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후보 모형을 비교한 뒤 설정하였다. 이후 LDA 결과로 산출된 문서-토픽 확률 분포(θ)를 활용해 토픽 비중을 산정하고, 각 문서의 최대 확률 토픽을 대표 토픽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기별 연구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 기간을 구분한 후, 시기별 대표 토픽 문서 수와 전체 문서 수 대비 비율(%)을 산출하여 토픽 분포와 상대적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Matplotlib·Seaborn 기반 그래프와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Python 텍스트마이닝 환경(KoNLPy, Scikit-learn, Gensim 등)에서 수행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어촌관광 관련 학술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2-그램 분석 및 TF-IDF 분석을 통해 어촌관광 연구의 핵심 키워드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어촌관광 연구의 잠재적 주제 구조와 중심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문서-토픽 분포를 기준으로 각 토픽의 핵심 키워드와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서 중 감마값이 높은 주요 연구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넷째, 토픽별 비중의 시기별 변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V. 연구 결과

1. 빈도, TF-IDF, 2-gram 분석 결과

빈도와 TF-IDF 분석에서 ‘어촌, 관광, 체험, 지역’이 상위에 나타났으며, TF-IDF에서는 ‘마을, 영향, 만족도, 이미지’ 등 맥락 의존적 개념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2-gram 분석에서 ‘어촌체험, 체험마을, 체험관광’ 등 체험 중심의 흐름과 자원의 관광화 측면에서 ‘관광자원, 상품개발, 자원 활용’과 ‘지역주민, 지역사회’는 함께 도출되었으며, 해양관광, 농어촌관광, 음식관광 등 관련 관광 유형과의 연계 중심어도 함께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TF-IDF 및 2-gram 분석 상위 중심어

순위	단어	TF-IDF (비율%)	단어	빈도수 (비율%)	2-gram 단어	빈도수(비율%)
1	어촌	16.631 (1.847)	관광	876 (4.483)	어촌 관광	241 (1.242)
2	관광	15.655 (1.739)	어촌	779 (3.986)	어촌 체험	132 (0.680)
3	체험	11.876 (1.319)	연구	404 (2.067)	관광 활성화	92 (0.474)
4	지역	9.761 (1.084)	지역	401 (2.052)	체험 마을	74 (0.381)
5	연구	7.668 (0.852)	체험	397 (2.032)	어촌 지역	65 (0.335)
6	마을	7.041 (0.782)	분석	301 (1.540)	체험 관광	63 (0.325)
7	분석	6.971 (0.774)	마을	220 (1.126)	관광 개발	63 (0.325)
8	개발	6.442 (0.716)	개발	216 (1.105)	연구 결과	58 (0.299)
9	영향	6.433 (0.715)	영향	193 (0.988)	지역 주민	56 (0.289)

10	해양	5.801 (0.644)	활성화	181 (0.926)	분석 결과	55 (0.283)
11	관광객	5.113 (0.568)	관광객	166 (0.849)	관광 자원	48 (0.247)
12	사업	5.092 (0.566)	해양	165 (0.844)	유의 영향	48 (0.247)
13	활성화	4.876 (0.542)	결과	164 (0.839)	연구 어촌	44 (0.227)
14	주민	4.672 (0.519)	사업	158 (0.809)	해양 관광	41 (0.211)
15	자원	4.547 (0.505)	활용	139 (0.711)	활성화 방안	41 (0.211)
16	만족도	4.058 (0.451)	자원	131 (0.670)	농어촌 관광	39 (0.201)
17	농어촌	4.019 (0.446)	주민	127 (0.650)	블루 투어	39 (0.201)
18	요인	3.944 (0.438)	활동	115 (0.589)	체험 프로그램	38 (0.196)
19	활동	3.915 (0.435)	필요	110 (0.563)	관광 상품	37 (0.191)
20	이미지	3.786 (0.421)	정책	109 (0.558)	지속 가능	36 (0.186)
21	정책	3.780 (0.420)	요인	109 (0.558)	연구 목적	34 (0.175)
22	활용	3.771 (0.419)	농어촌	108 (0.553)	관광 체험	29 (0.149)
23	결과	3.635 (0.404)	방안	102 (0.522)	음식 관광	28 (0.144)
24	산업	3.611 (0.401)	중심	102 (0.522)	결과 어촌	27 (0.139)
25	방문	3.597 (0.400)	특성	101 (0.517)	분석 연구	27 (0.139)
26	특성	3.383 (0.376)	만족도	95 (0.486)	지역 경제	26 (0.134)
27	프로그램	3.379 (0.375)	방문	94 (0.481)	바다 목장	26 (0.134)
28	동기	3.341 (0.371)	산업	93 (0.476)	어촌 마을	26 (0.134)
29	필요	3.273 (0.364)	프로그램	93 (0.476)	설문 조사	25 (0.129)
30	시설	3.242 (0.360)	시설	89 (0.455)	해양 어촌	25 (0.129)
31	방안	3.233 (0.359)	대상	88 (0.450)	지역 사회	24 (0.124)
32	가치	3.100 (0.344)	문화	83 (0.425)	결과 다음	23 (0.119)
33	서비스	3.096 (0.344)	목적	79 (0.404)	중심 연구	23 (0.119)
34	투어	3.087 (0.343)	관계	78 (0.399)	관광 활동	23 (0.119)
35	문화	3.087 (0.343)	서비스	76 (0.389)	관광 수요	23 (0.119)
36	발전	3.051 (0.339)	이미지	76 (0.389)	상품 개발	22 (0.113)
37	사회	3.017 (0.335)	유의	75 (0.384)	분석 실시	22 (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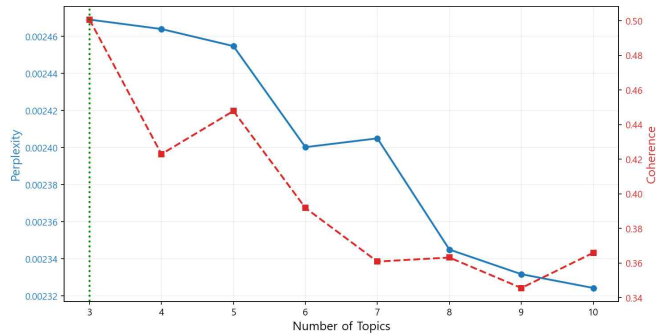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 토픽 수의 결정

토픽 수 결정은 Coherence와 Perplexity 값을 함께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 3개부터 10개까지의 후보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 [그림 1]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픽 수가 3개일 때 Coherence 값이 0.500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토픽 수를 4개에서 10개까지 증가시켰을 때 Coherence 값은 각각 0.422885, 0.447816, 0.391796, 0.360811, 0.363150, 0.345554, 0.3659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erplexity는 토픽 수 3개에서 0.002469, 토픽 수 10개에서 0.002324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토픽 수 증가에 따른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토픽 수를 4개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일부 키워드와 주제가 중복되어 해석의 명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 지표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관광 연구의

주요 흐름을 주민·마을사업 및 정책, 관광객 경험과 선택, 해양문화자원 및 산업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 3개 토픽 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그림 1] Coherence와 Perplexity 비교



<표 2> Coherence와 Perplexity 비교

토픽 수	Coherence	Perplexity	토픽 수	Coherence	Perplexity
3	0.500629	0.002469	7	0.360811	0.002405
4	0.422885	0.002464	8	0.363150	0.002345
5	0.447816	0.002455	9	0.345554	0.002332
6	0.391796	0.002400	10	0.365903	0.002324

토픽모델링 결과, <표 3>과 [그림 2]와 같이 어촌관광 연구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었다. 토픽 1은 주민·사업·정책·전략·수요·효과·어항·농어촌을 중심으로 주민·마을사업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토픽 2는 체험·방문·만족도·요인·이미지·동기·서비스·선택을 중심으로 관광객 경험과 행동 분석 연구, 토픽 3은 해양·자원·산업·문화·시설·축제·공간·콘텐츠·어업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활용과 산업·운영 구조 연구로 나타났다. 토픽별 비중은 토픽 3(39.13%), 토픽 2(36.23%), 토픽 1(24.64%) 순으로, 세 토픽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해양문화 콘텐츠 기반 자원개발·산업·정책과 관광객 행동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어촌관광 연구의 토픽 구조

토픽	키워드(가중치)
토픽 1 주민 마을사업 운영 및 효과 인식 (34편, 24.64%)	주민(0.02834), 사업(0.02382), 마을(0.01776), 투어(0.01126), 블루(0.01081), 정책(0.01003), 방안(0.00922), 운영(0.00876), 경제적(0.00816), 특성(0.00807), 관광객(0.00777), 기반(0.00747), 효과(0.00742), 수요(0.00728), 전략(0.00725), 어항(0.00712), 통합(0.00674), 사회적(0.00641), 도시(0.00638), 평가(0.00628), 가능(0.00614), 도출(0.00592), 강화(0.00591), 참여(0.00580), 개선(0.00570), 사례(0.00570), 필요(0.00568), 경제(0.00564), 농어촌(0.00561), 인식(0.00557)

토픽 2 관광객 체험·마을 선택·평가 (50편, 36.23%)	체험(0.06916), 영향(0.02912), 마을(0.02426), 관광객(0.02161), 요인(0.01831), 방문(0.01612), 만족도(0.01607), 유의(0.01408), 관계(0.01182), 프로그램(0.01177), 낚시(0.01137), 이미지(0.01109), 대상(0.01085), 활동(0.01068), 농어촌(0.00915), 동기(0.00890), 특성(0.00821), 가치(0.00799), 의도(0.00777), 설문(0.00773), 조사(0.00772), 실시(0.00756), 인식(0.00737), 서비스(0.00727), 속성(0.00724), 만족(0.00703), 해양(0.00687), 선택(0.00679), 방문객(0.00677), 상품(0.00652)
토픽 3 해양 문화 자원·시설·산업 개발 정책 (54편, 39.13%)	해양(0.02226), 자원(0.01961), 산업(0.01389), 문화(0.01288), 정책(0.01207), 필요(0.01206), 시설(0.01174), 방안(0.01119), 발전(0.01113), 사회(0.01044), 사업(0.00966), 활동(0.00904), 축제(0.00849), 공간(0.00842), 제시(0.00788), 농어촌(0.00769), 음식(0.00716), 어업(0.00693), 해안(0.00652), 기능(0.00646), 정부(0.00633), 콘텐츠(0.00624), 지속(0.00619), 관련(0.00617), 추진(0.00616), 유형(0.00604), 다양(0.00569), 가치(0.00562), 특성(0.00559), 요구(0.00551)

[그림 2]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



한편, 토픽모델링 분석은 단어들의 공출현 패턴을 기반으로 형성된 주제적 경향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각 토픽의 중심어와 문서-토픽 분포 확률(감마값)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감마값은 특정 문서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감마값이 높은 문헌만으로 토픽의 의미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마값 상위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토픽별 중심어의 가중치, TF-IDF 및 2-gram 분석 결과, 토픽별 문헌 분포, 대표 문헌의 제목·초록·주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토픽명을 부여하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였다.

2) 토픽 1: 주민 마을사업 운영 및 효과 인식

어촌관광 학술연구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토픽 1은 <표 4>와 같이 어촌 관광 개발 및 활성화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 정책·사업 운영, 수요 및 효과의 관점에서 구성된 연구 집합으로 해석된다.

<표 4> 토픽 1 중심어-관련 논문

중심어	주제 (γ)	연구자(연도)
주민·마을· 참여·사회 적·경제적· 통합·인식	관광어촌 경제활동 및 성별 노동 변화 (0.9933)	유보경(2005)
	어촌 관광개발·주민·공무원·전문가 중요도(0.9842)	나운중(2012)
	주민 어촌관광 경제 혜택·사회적 통합 인식 (0.9903)	김승준·이제우(2021)
	해양레저관광·어촌 젠트리피케이션·주민 태도 (0.9918)	유예지·김주락(2024)
	양양 관광지화에 따른 어촌과 주민생활 변화(0.9909)	이중구·남성우(2024)
사업·운영· 정책·평가· 전략·개선· 방안	어촌관광 정책의 한일 비교 (0.9154)	나운중(2009)
	관광마을 네트워크 운영조직 한·일 비교(0.9910)	곽강희(2015)
	어촌관광 관련 법률의 개선에 관한 연구 (0.9886)	공라경(2012)
	어촌뉴딜 300사업·어촌공공성 평가 및 표현 (0.9962)	이현주·서지은(2021)
	섬 지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정책 효과성 (0.8855)	우양호(2025)
	초도 어촌계 웹사이트 구조와 콘텐츠 특성 (0.8105)	이동호·최명길·문성주(2010)
	어촌관광 활성화·디자인 주도 혁신 플랫폼 전략(0.8812)	김경배(2024)
수요·효과· 도시·어항· 농어촌·블 루투어리즘	복합형어항 개발·인프라 정비 파급효과(0.9943)	김경수(2007)
	하이브리드 답러닝 모형·어항 관광수요 예측 (0.9922)	황규원·이문숙·이철용(2025)
	도농관광수요·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 (0.9894)	심상화·김민정(2011)
	도시어촌관광 환경단서 중요도·만족도 차이 (0.8819)	하정우(2020)
	한국 블루투어리즘의 갈등해소방안 (0.8891)	김정하(2009)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블루투어리즘의 활용 (0.8719)	김현정(2024)

주: γ는 문서-토픽 분포값으로, 각 문서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의미함.

주민 인식 관련 중심어(주민·마을·참여·사회·경제)는 어촌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 흐름을 보여주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관광어촌의 경제활동과 성별 노동 변화가 분석되었고(유보경, 2005), 이후에는 주민의 경제·사회적 인식과 주민-실무자 간 인식 차이를 다룬 연구로 이어졌다(김승준·이제우, 2021; 김승준 외, 2022; 나운중, 2012). 나아가 최근에는 관광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주민 영향 연구로 관심이 확대되었다(유예지·김주락, 2024; 이중구·남성우, 2024).

이러한 논의는 어촌관광 사업의 운영과 정책 개선을 다루는 연구로도 연결된다. 사업·운영 관련 중심어(사업·운영·정책·평가·전략·개선)는 정책평가, 사업 추진, 운영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축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평가 측면에서는 어촌뉴딜 300의 공공성 구체화와 주민 인식 기반 정책 효과성 분석이 수행되었으며(우양호, 2025; 이현주·서지은, 2021), 운영 측면에서는 웹 기반 콘텐츠 구조와 플랫폼 전략을 통한 운영 개선 연구가 이루어졌다(김경배, 2024). 또한 제도 측면에서는 어촌관광 관련 제도 및 법률 비교 연구가 제시되었다(공라경, 2012; 곽강희, 2015; 나운중, 2009).

지역개발·수요·효과 관련 중심어(지역개발·관광수요·사업효과·도시·어항·농어촌·블루투어리즘)는 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개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 흐름을 형성한다. 이 흐름은 관광객의 체험과 만족을 직접 분석하는 토픽 2와 달리, 어촌관광 수요

예측, 어항 개발, 인프라 정비, 지역발전 효과 등 정책·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도농 관광수요 기반 활성화·어항 관광수요 예측·도시 내 어촌 관광환경 인식 분석(심상화·김민정, 2011; 하정우, 2020; 황규원·이문숙·이철용, 2025), 효과 측면에서는 어항 개발·인프라 정비의 파급효과와 블루투어리즘의 갈등·지역발전 활용 연구가 확인된다(김경수, 2007; 김정하, 2009; 김현정, 2024).

3) 토픽 2: 관광객 체험·마을 선택·평가

토픽 2는 어촌관광객의 체험활동, 선택요인, 경험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 흐름을 반영한다. 주요 중심어는 체험공간(어촌체험마을, 축제), 체험활동(체험, 프로그램, 낚시, 갯벌 등), 선택요인(관광객, 방문객, 동기, 선택, 속성, 서비스), 그리고 경험 평가(이미지, 인식, 가치, 만족, 재방문)로 나타난다(<표 5> 참조).

체험·활동 측면에서는 연안·선상 낚시의 수요와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며(강석규, 2016; 2017), 체험공간·공급자 특성 측면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환경,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 개성, 마을 이미지, 서비스 속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남중현, 2020; 박대환·이양희, 2017; 최규철 외, 2022). 또한 어촌마을 이미지는 유튜브 콘텐츠 특성, ESG 경영, 체험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응섭·김덕환, 2025; 이광수, 2024; 장양례, 2023).

선택·속성 측면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선택과 관련하여 선택실험법 및 컨조인트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으며(김동찬·최우영, 2013; 문준호 외, 2022; 손재영, 2008), 자연환경, 체험활동, 시설, 접근성, 가격, 지역성,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등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윤홍권·권혁인, 2020). 한편 관광 체험은 수요자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개인 특성과 동기, 세대 특성, 관광객 특성과 프로그램 선택, 개인 선호와 만족, 동기·이미지·만족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강상국·이재석·윤미경, 2023; 천덕희·이영관, 2023).

<표 5> 토픽 2 중심어-관련 논문

중심어	주제 (γ)	연구자(연도)
관광객·마을·농어촌·방문·동기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사업과 고유성 (0.9904)	정재은·윤상복(2014)
	어촌체험마을 환경특성·체험프로그램·만족 (0.9919)	박대환·이양희(2017)
	어촌체험마을 관광 체험과 만족 영향 (0.9901)	남중현(2018)
	관광객 특성-어촌체험프로그램 선택 (0.9938)	이서구·최규철·김정태(2020)
	남해군 어촌체험마을을 관광객 연구 (0.9933)	박응섭·김덕환(2025)
	양양군 수산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 체험 (0.9901)	최규철 외(2022)
	어촌체험마을 방문 동기·만족 (0.9900)	천덕희·이영관(2023)
	어촌관광 방문 동기 연구 (0.9834)	이용일(2012)

선택·속성·요인·서비스·가치·만족·영향	컨조인트 분석 이용 어촌관광 선택속성 (0.9913)	손재영(2008)
	어촌관광객 선호속성-체험관광 만족도 (0.9951)	장양래·윤유식·구본기(2011)
	생태체험관광 기반 어촌체험마을 선택속성 (0.9224)	김동찬·최우영(2013)
	선택실험법 활용 어촌관광 선택요인 (0.9890)	문준호·이원석·심지민(2022)
	서비스품질·가치·만족·재방문의도 (0.9925)	윤홍권·권혁인(2020)
체험·활동·남시·이미지·인식	CVM 이용 선상 낚시 체험활동 가치 평가 (0.9939)	강석규(2016)
	연안 바다목장의 어업 인식 및 유어 낚시 수요 (0.9981)	강석규(2017)
	유튜브 콘텐츠 특성-이미지·방문의도 (0.9937)	이광수(2024)
	감정적 이미지 인식-관광 숙박 수요 (0.9402)	김소라·이상철(2024)
	어촌관광 체험요인-관광지 이미지 (0.9933)	박응섭·김덕환(2025)

주: γ는 문서-토픽 분포값으로, 각 문서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의미함.

4) 토픽 3: 해양 문화 자원 · 시설 · 산업 개발 정책

토픽 3은 어촌자원의 관광콘텐츠화, 공간·시설 활용, 어업 연계 산업·정책이 결합된 연구 흐름으로, 해양·문화·자원·콘텐츠 기반에서 축제·전시·미식·경관·갯벌·어업유산·브랜딩 등 콘텐츠 연구가 수행되었다(<표 6> 참조). 공간·시설 측면에서는 공동체·관광·소득 창출 시설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고(김종천·김지웅, 2020), 어촌지역을 균형발전형·어업산업형·생산특화형으로 유형화한 연구도 수행되었다(김정태, 2013). 또한 어촌공간은 어업·여가·체험·스포츠 기능으로 구분되었으며(지삼엽·김용재·이재형, 2005),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이승우, 2007). 이러한 흐름은 관광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시설 이용 구조의 변화와도 연결되었다(송경언, 2003).

산업·정책 중심어와 관련해서는 어촌민박업 이슈 네트워크 분석과 코로나 대응 관광 전략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서은경·이호영, 2024; 이수해·조정형, 2023), 이전 시기에는 융복합·웰니스·지속가능관광 등 다양한 정책·사업 연구가 축적되었다(이정철, 2017; 채동렬, 2014). 종합하면 토픽 3은 해양문화자원의 관광콘텐츠화, 공간·시설 활용, 그리고 어업·산업 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어촌관광 연구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토픽 3 중심어-관련 논문

중심어	주제 (γ)	연구자(연도)
해양·문화·자원·콘텐츠·음식·축제	전남 갯벌 자원-어촌체험마을 생태관광 개발 (0.9902)	곽행구·김동오·김지민(2008)
	섬 지역 수산물 음식 자원-어촌관광 활성화 (0.9952)	김성근·김보성(2021)
	해양문화 관광콘텐츠-어촌 활성화 사례 (0.9902)	주현희·주현희(2023)
	해양경관 문화콘텐츠-어촌 문화관광 활성화 (0.9959)	예산홍·조정형(2023)
	기장 멸치 축제 특성과 글로벌 해양관광 연계 (0.9932)	공미희(2023)
	지역소멸 대응 해양축제 활성화 전략 (0.9935)	최용훈·김연수·송승규(2023)
	지역 특산물 기반 미식 관광 개발 (0.9903)	김용완·김보성·이용규(2025)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자원화 정책 제언 (0.9923)	조성대(2022)

공간·시설· 해안·활동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 (0.9930)	송경언(2003)
	어촌·어항 기반 해양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 (0.9907)	지삼업·김용재·이재형(2005)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법제도 개선방안 (0.9902)	이승우(2007)
	어촌지역 유형 구분 및 지역개발 방향 (0.9954)	김정태(2013)
사업·산업· 어업·정책· 정부·사회· 발전·지속· 농어촌	어촌 공동시설 기능 및 공간 특성 분석 (0.9965)	김종현·김지웅(2020)
	포스트코로나 해안어촌 PEST-SWOT 분석 (0.9903)	이수해·조정형(2023)
	농어촌민박 정책 이슈 의미연결망 분석 (0.9908)	서은경·이호영(2024)
	웰니스·의료관광-농어촌 체류형 관광상품 (0.9934)	이정철(2015)
	해양관광 정책 융복합 접근 (0.9883)	이정철(2017)
	해양보호구역 기반 지속가능 해양관광 관리 (0.9905)	채동렬(2014)

주: x는 문서-토픽 분포값으로, 각 문서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의미함.

4. 시기별 토픽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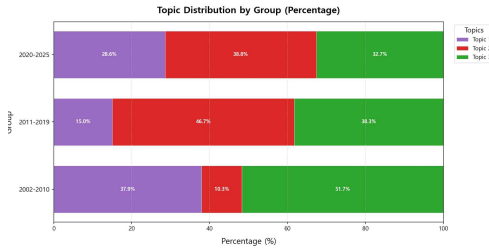
토픽 간 시기별 비중을 비교하면 <표 7>과 같이, 초기(2002-2010)에는 토픽 3(자원·산업)이 51.7%(15편)로 중심을 이루며 자원 활용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된 반면, 토픽 2(관광객 경험)는 10.3%(3편)에 그쳤다. 이후 중기(2011-2019)에는 연구량 증가와 함께 Topic 2가 46.7%(28편)로 확대되어 관광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토픽 3(38.3%)도 높은 비중을 유지해 자원·산업과 경험 연구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표 7> 시기별 토픽 분포

구분	토픽 1(주민) n(%)	토픽 2(관광객) n(%)	토픽 3(자원) n(%)	전체
2020-2025 (최근 6년)	14 (28.6)	19 (38.8)	16 (32.7)	49
2011-2019 (중기 9년)	9 (15.0)	28 (46.7)	23 (38.3)	60
2002-2010 (초기 9년)	11 (37.9)	3 (10.3)	15 (51.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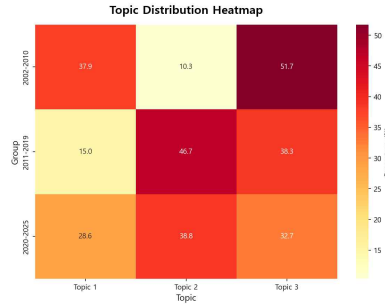
[그림 3]의 막대비율그래프와 [그림 4]의 히트맵은 시기별 토픽 집중도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Topic 3(녹색: 자원) 중심, 중기에는 Topic 2(적색: 관광객)로 이동하였으며, 후기에는 세 토픽이 유사하게 분포하며 균형적 확장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3] 시기별 토픽 분포(비율)



주: 상단(2020-2025년),
중간(2011-2019년), 하단(2002-2010년);
보라(토픽 1- 주민),
적색(토픽 2- 관광객), 녹색(토픽 3- 자원)

[그림 4] 시기별 토픽 분포 히트맵



주: 상단(2020-2025년), 중간(2011-2019년),
하단(2002-2010년); 색이 진할수록 비중이
높음; 가로(좌→우): 토픽 1, 토픽 2, 토픽 3)

시기별 토픽 비중 변화는 어촌관광 연구가 자원개발 중심에서 관광객 경험 중심으로 이동한 뒤, 주민·관광객·자원·정책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초기(2002-2010년)에는 토픽 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어촌관광이 도입 기에는 해양자원, 어항, 수산시설, 어촌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자원개발 및 기반 조성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중기(2011-2019년)에는 토픽 2의 비중이 확대된 점은 어촌체험마을과 체험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해양수산부, 2025), 관광객의 선택속성, 방문동기, 체험만족, 재방문의도 등 수요자 중심 연구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후기(2020-2025년)에는 세 토픽이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연기반·근거리·체류형 관광에 대한 관심, 어촌뉴딜300 및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정책사업의 추진,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콘텐츠 개발 논의 등이 함께 나타난 흐름과 관련될 수 있다. 어촌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촌관광은 체험 관광뿐 아니라 생활·관계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도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후기의 균형적 토픽 분포는 어촌관광 연구가 특정 주제에 집중되기보다 주민 기반 운영, 관광객 경험, 해양문화자원, 정책 지원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과 제언

어촌관광은 소규모·소자본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어촌 재생사업,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과 연계되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촌관광 학술연구의 토픽 구조를 분석한 결과, 주민·관광객(who), 체험활동과 관광동기(what·why), 어촌공간과 해양문화자원(when·resource), 산업 및 정책 추진 방식(how)이 결합된 구조를 확인하

였다. 토픽 1은 주민의 개발 영향 인식과 마을사업 운영, 관광 수요 및 효과를 다루며, 토픽 2는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관광객의 선택 요인, 만족,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경험·행동 중심 연구로 나타났다. 토픽 3은 해양문화 자원의 관광자원화, 콘텐츠 개발, 공간 및 시설 구축, 산업 및 정책 접근을 포함하는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토픽 1은 주민참여와 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부 자원과 주민 역량을 강조하는 내생적 지역개발론과 연결되며,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심원섭, 2017). 또한 주민, 사업, 정책, 운영, 평가, 개선 등의 키워드는 어촌관광이 지역 사회자본, 지역혁신체계, 관광거버넌스가 결합된 지역 기반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임관혁·유창근, 2010).

토픽 2는 관광객의 체험, 선택, 만족, 행동의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경험경제 이론 및 관광객 행동이론과 관련되며, 어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Pine & Gilmore의 체험 영역 모델로 분석한 연구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경제 이론, 지각된 가치, 관광만족, 재방문의도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이영진·송영민·이광표, 2011; 이종현·고영길, 2022; 최규철 외, 2022).

또한 토픽 3은 해양문화자원, 공간·시설, 콘텐츠, 산업·정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어촌의 장소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장소기반 관광개발 및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관광기반형 장소마케팅이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전소라·정봉현, 2020).

본 연구 결과는 어촌관광 연구가 해양관광의 여러 연구 흐름과 일정 부분 중첩되면서도, 주민, 마을사업, 관광객 경험, 체험활동, 자원 활용, 정책을 함께 다루는 지역 사회 기반 연구 흐름을 형성해 왔음을 보여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선상 낚시, 연안 바다목장 등 해양관광 관련 주제가 어촌관광 연구 범위 안에서 함께 다루어졌으며, 이는 어촌관광 연구가 해양관광과 명확히 분리된 독립 영역이라기보다, 해양관광의 일부 주제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어촌의 지역사회 기반성과 생활·생산·문화 자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해양관광 연구동향 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해양관광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해양관광의 하위 주제, 정책 연계성, 지역 활성화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면(고민환, 2024; 박경열·남아란, 2020; 이유안·윤대홍, 2025; 최정석·이창현, 2024), 본 연구는 어촌관광 학술연구만을 대상으로 주민, 관광객, 자원, 정책이 결합된 주제 구조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토픽 구조와 감마값이 높은 관련 논문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어촌관광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어촌관광 언론보도 분석과 달리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연구의 주제 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고지영·이재완(2024)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어촌관광 이슈가 인프라·개발, 어업인·소득·자원, 귀

어·정주·체류 등 정책 프레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학술논문 초록을 기반으로 주민 인식, 마을사업 운영, 관광객 체험과 선택, 해양문화자원 활용, 산업·정책 구조 등 어촌관광 연구의 학술적 주제 구조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는 연도별 결과를 직접 대응시키기보다는, 언론 담론과 학술 담론의 분석 초점 차이를 보여주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어촌관광 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주민·마을사업 관련 토픽은 어촌관광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인식, 참여, 운영 역량을 반영한 지역 기반 사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관광객 경험 관련 토픽은 어촌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해양문화자원 및 산업정책 관련 토픽은 어항, 수산자원, 음식, 축제, 해양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어촌관광을 지역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촌관광 정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방문객 유치에 머무르기보다, 주민참여, 관광객 경험, 지역자원 활용, 정책 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어촌관광 연구가 관광객 유입·어촌사회 유지·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 수집·선별이 특정 데이터베이스(KCI)에 의존하여 연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검색어와 제외 기준에 따라 일부 연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어촌관광은 해양관광과 중첩된 영역으로 개념적 혼재와 범위 설정의 불명확성을 내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감마값이 높은 문헌과 중심어를 통해 토픽을 해석하였으나, 감마값은 문서와 토픽 간의 확률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해당 문헌이 토픽 전체를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중심어 가중치, TF-IDF 및 2-gram 결과, 토픽별 문헌 분포, 감마값 상위 문헌의 실제 연구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토픽 명명과 의미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수 연구자 간 교차 검토나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토픽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어촌관광 연구의 주제 구조를 분석하였으나, 텍스트마이닝 분석의 특성상 “영향”, “방안” 등 연구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분석어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해석 과정에서 이러한 일반적 용어보다 주제적 의미가 뚜렷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불용어 사전의 정교화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여 토픽 해석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토픽과 시기별 비중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정책 변화, 인구 감소, 관광 수요 변화, 지역경제 지표 등 외부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촌관광 연구의 변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동적 토픽모델링이나 구조적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주제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자료, 언론보도, 관광객 리뷰, 지역 통계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여 어촌관광 연구와 실제 정책·현장 변화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상국·이재석·윤미경(2023). MZ 세대 방문객의 어촌체험관광 활동이 지역애착, 어촌이미지, 체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지역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 19-30.
- 강석규(2016). CVM을 이용한 선상낚시 체험활동의 효용 가치. 『수산경영론집』, 47(4), 45-55.
- 강석규(2017). 연안 바다목장의 어업 인식도 및 유어낚시 수요도 조사: 통영시 비진도·용초도·죽도 사례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8(1), 73-87.
- 고민환(2024).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국내 크루즈 관광 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9), 167-178.
- 고지영·이채완(2024). 국내 언론에 보도된 어촌관광 이슈의 변동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지』, 30(4), 299-307.
- 공라경(2012). 어촌관광 관련 법률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4(3), 249-282.
- 공미희(2023). 해양관광 축제의 특성과 글로벌 연계 발전 방안: 기장 멀치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4(2), 1-29.
- 곽강희(2015). 농·어촌 관광네트워크 운영조직에 관한 고찰: 국내 및 일본의 관광마을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11), 49-58.
- 곽행구·김농오·김지인(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2(2), 227-243.
- 김경배(2024).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주도 혁신 플랫폼 전략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235-246.
- 김경수(2007).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개발에 따른 인프라 정비의 파급효과 분석: 부산시 기장 지역 어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1), 146-157.
- 김남규·장승현·이근모(2022). 마리나에 대한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보도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3), 1-18.
- 김동찬·최우영(2013).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의 선택 속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6), 29-42.
- 김성귀·홍장원·박상우(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근·김보성(2021).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33(1), 59-78.
- 김소라·이상철(2024). 어촌관광객의 감정적 이미지 인식이 관광 숙박 수요에 미치는

-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6(5), 901-910.
- 김승준.이제우(2021). 관광어촌 주민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통합 인식 차이. 『여가관광연구』, 23(1), 29-50.
- 김승준.임석.권오열(2022). 어촌관광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과 권한 강화가 사회적 통합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31(6), 65-86.
- 김용완.김보성.이웅규(2025). 지역 특산물 활용 미식관광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 『한국도서연구』, 37(2), 21-37.
- 김정태(2013). 행정구역에 기초한 어촌지역의 유형 구분과 지역개발 방향. 『농촌계획』, 19(4), 81-93.
- 김정하(2009). 한국 블루투어리즘의 갈등과 해소 방안. 『동북아문화연구』, 21, 213-229.
- 김종천.김지웅(2020). 어촌 공동시설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2(4), 201-219.
- 김현정(202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블루투어리즘의 활용. 『日本學研究』, 72, 87-106.
- 나운중(2009). 어촌관광 정책의 한·일 간 비교: 법과 제도, 정책과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6, 213-236.
- 나운중(2012). 어촌관광 개발 컨설팅 요소에 대한 주민, 공무원, 전문가가 지각한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8(3), 109-125.
- 남중현(2018). 어촌체험마을의 관광체험이 관광객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0(3), 337-352.
- 남중현(2020). 어촌체험마을의 브랜드 개성이 이미지, 만족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22(1), 40-56.
- 대한민국(202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311&ancYnChk=0#0000> (접속 일: 2026년 6월 10일).
- 문준호.이원석.심지민(2022).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어촌관광 선택 요인에 대한 탐구. 『관광레저연구』, 34(7), 23-39.
- 박경열.남아란(2020).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해양치유 정책 프레임 구조 분석: 언론과 학술논문 비교·분석. 『관광레저연구』, 32(11), 407-425.
- 박대환.이양희(2017). 어촌체험마을의 환경 특성과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기장군 공수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2), 205-222.
- 박응섭.김덕환(2025). 어촌관광 체험요인이 관광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남해군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43(3), 1-10.
- 서은경.이호영(2024).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별 농어촌민박 정책 이슈 의미 연결망 분석: 언론보도를 중심으로(2008-2024). 『해양관광연구』, 17(3), 115-134.
- 손재영(2008).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어촌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동해안 어

- 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23(1), 107-132.
- 송경언(2003).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 이용 변화 과정. 『대한지리학회지』, 38(1), 87-103.
- 송소현.안병철(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의 경험 분석: 화성시 백미리와 양양군 수산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27(4), 13-24.
- 신승아(2025). 빅데이터 기반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해양스포츠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활성화 방안: LDA 기법을 활용. 『한국스포츠학회지』, 23(1), 15-36.
- 심상화.김민정(2011). 관광 이동 수요의 구조 분석을 통한 도농통합 농어촌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8(2), 121-144.
- 심원섭(2017).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본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관광학연구』, 41(6), 101-125.
- 예산홍.조정형(2023). 해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어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부산 청사포 지역의 어촌경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1), 503-514.
- 우양호(2025). 섬 지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정책 효과성: 주민의 시각과 평가. 『도서문화』, 66, 341-370.
- 유보경(2005). 어촌마을 경제구조와 성별 노동의 변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를 중심으로. 『지방사와지방문화』, 8(2), 259-297.
- 유예지.김주락(2024). 해양레저관광에 의한 어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전개 양상과 지역주민 태도. 『대한지리학회지』, 59(1), 91-109.
- 윤홍권.권혁인(2020). 소규모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가치, 만족도, 재방문 의도의 인과적 관계. 『경영교육연구』, 35(5), 31-58.
- 이광수(2024). 유튜브 콘텐츠 특성이 목적지 이미지, 방문의도 및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어촌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23, 23-43.
- 이동호.최명길.문성주(2010). 초도 진막 어촌계 웹사이트 구조와 콘텐츠 특성에 대한 분석과 제언. 『한국도서연구』, 22(4), 147-162.
- 이상규.윤영준.민재한.이세진(2024).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서구.최규철.김정태(2020). 관광객 특성에 따른 어촌체험 프로그램 선택의 영향력 분석. 『농촌계획』, 26(3), 1-12.
- 이수해.조정형(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해안 어촌의 PEST-SWOT 분석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3(1), 41-49.
- 이승우(2007).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수산종묘 생산시설·인공어초와 방파제를 대상으로. 『수산경영론집』, 38(3), 25-52.
- 이영진.송영민.이광표(2011). 강릉시 어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의 유형화: Pine & Gilmore의 체험영역 모델 적용. 『수산해양교육연구』, 23(4), 695-708.

- 이용일(2012). 도시민의 어촌관광 동기에 따른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9, 19-32.
- 이유안·윤대홍(2025). 섬 관광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2001-2025)의 주제 탐색: 토픽 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도서연구』, 37(4), 73-95.
- 이재혁(2020).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2009-2019)를 통해 본 해양관광 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서문화』, 55, 1-20.
- 이정철(2015). 농어촌지역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방안: 웰니스·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1), 75-92.
- 이정철(2017).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233-238.
- 이종현·고영길(2022). 강원도 양양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경제이론 4Es, 지각된 가치, 관광만족 및 재방문의도 간 영향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34(5), 57-75.
- 이중구·남성우(2024). ‘서울특별시 양양구’의 탄생: 관광지화에 따른 ‘양리단길’ 주변 어촌과 주민생활의 변화. 『한국민속학』, 80, 109-140.
- 이현주·서지은(2021). 어촌뉴딜300 사업 사례를 통한 어촌 공공성 평가 및 표현 방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1), 71-80.
- 임관혁·유창근(2010). 지역사회자본, 지역혁신체계(RIS)와 관광거버넌스와의 영향 관계연구: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4(2), 159-180.
- 장신이·여영숙(2021). 해양관광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 분석. 『해양관광연구』, 14(2), 195-215.
- 장양례(2021). 어촌체험관광 선호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어촌뉴딜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연구』, 14(3), 65-84.
- 장양례(2023). 어촌관광 ESG 경영이 마을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 포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연구』, 16(4), 29-46.
- 장양례·윤유식·구본기(2011). 어촌관광객의 선호속성, 체험관광 만족도 및 상품개발 지지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25(6), 341-363.
- 전소라·정봉현(2020). 관광기반형 장소마케팅의 정부 간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정책을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3), 147-163.
- 정승훈·남윤섭(2015).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해양관광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관광경영연구』, 19(1), 233-248.
- 정재은·윤상복(2014). 화성시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고유성과 관광체험이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산경영론집』, 45(2), 25-45.
- 조성대(2022). 어촌 소멸 위기 시대 국가 중요 어업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어촌 생활인구 관점에서. 『해양관광연구』, 15(3), 79-101.
- 주현희·주현희(2023). 해양문화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동북아 어촌 활성화 사례 고찰: 부산, 후쿠오카, 청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62, 339-377.

- 지삼엽·김용재·이재형(2005). 어촌·어항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17(1), 86-105.
- 진영재(2020). 해양관광학 학문체계 진단 및 정립 방향: 『해양관광연구』 게재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연구』, 13(2), 1-15.
- 진영재(2025). 해양관광 연구 분석을 통한 현상, 이론 및 정책 정합성 탐색: 학술지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연구』, 18(2), 9-27.
- 채동렬(2014).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제도 적용 방안. 『한국도서연구』, 26(2), 81-99.
- 천덕희·이영관(2023). 어촌관광 동기가 목적지 이미지와 여행객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2), 191-204.
- 최규철·김정태·이서구·김주택(2022). 강원도 양양 수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경제 이론, 지각된 가치, 관광만족 및 재방문의도 간 영향 관계 연구. 『수산경영론집』, 53(1), 35-54.
- 최규철·이서구·강동선(2021).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어촌관광 변화 추이 빅데이터 분석 연구: 거제시 다대 어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리서치』, 6(3), 290-298.
- 최용훈·김연수·송승규(2023).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양축제 활성화 방안. 『해양관광연구』, 16(2), 65-81.
- 최정석·이창현(2024).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40(3), 47-59.
- 최창호·김재호(2024). 해양관광 정책과 학술연구 간의 연관성 분석. 『해양관광연구』, 17(2), 23-43.
- 통계청(2022).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80500&bid=226&act=view&list_no=417699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통계청(2025).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80500&bid=226&act=view&list_no=436097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하경희(2021).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해양관광 트렌드 분석: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연구』, 14(1), 9-30.
- 하정우(2020). 도시 어촌관광 환경 단서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 『Tourism Research』, 45(3), 605-625.
- 한국어촌어항공단(2026).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소개 및 성과 및 자료
<https://fipa.or.kr/fipa/cntnts/i-83/web.do>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해양수산부(2020).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계획.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32299&menuSeq=375&bbsSeq=9>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해양수산부(2022).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7435&menuSeq=375&bbsSeq=9>

- bsSeq=9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해양수산부(2025). 해양관광포털: 어촌체험휴양마을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130446/fileData.do> (접속일: 2026년 6월 10일).
- 허균(2020). 해양 정책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및 초록 네트워크 분석: 최근 11년 (2009-2019년)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2(2), 594-606.
- 황규원, 이문숙, 이철용(2025). Hybrid Deep Learning 모형을 이용한 국가어항 관광 수요 예측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31(6), 1031-1042.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2026년 04월 15일 원고 접수

2026년 06월 25일 최종 심사 완료

2026년 06월 10일 최종 수정본 접수

2026년 06월 29일 최종 논문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 畢